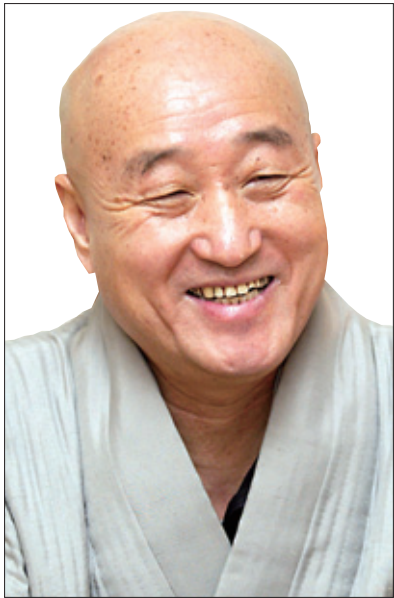


제22회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불암사 주지)과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2회 포교대상 수상식에서 공로

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지난주 포교대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에 이어 일면 스님과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이 걸여온 포교의 길을 조명했다.

“생명나눔과 군포교가 나의 수행”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11월 5일 제22회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포교원(원장 혜총)은 일면 스님이 해온 많은 공로 중에서 장기기증운동

과 군 포교, 장학사업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일면 스님은 1947년 경상북도 영해에서 태어났다. 13세에 출가한 일면 스님은 가야산 해인사 선방수좌였던 은사 스님인 명허 선사를 시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일면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군대를 전역한 뒤 만학도로 동국대를 졸업한 뒤에 다시 해인사를 찾아 구도의 길을 걸었다. 잘 알려져 있듯 일면 스님은 1년에 16차례 입원 할 정도로 간이 좋지 않아 장기기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간이식을 받은 그날부터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스님은 “두 번 사는 인생에 몸을 아끼 마음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복지·포교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스님은 2007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해 장기기증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설립돼 불교의 자비사상

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해 복지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당시 좁은 사무실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총무원장을 지낸 법장 스님에 이어 일면 스님이 이사장이 된 후 1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을 얻었다. 스님은 본부의 지부를 대구, 제주 등에 개설하는 등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보건복지부 등록 장기기증결연기관으로 기증 및 후원회원 2만여 명이 가입해 신뢰와 권위를 갖춘 단체로 위상을 높였다. 초대 군중교구장으로 활동하며 군 불교 발전에 많은 업적을 세웠다. 스님은 총무원이 군중교구에 지원 하는 금액의 10배인 25억을 화주했으며, 한 달 평균 4~5차례 이상 전국 군법당을 찾아다니면서 장병들을 만났다. 군포교 현장에서 병사들의 애로점을 듣고 실무에 직접 반영하는 등 군 승정체성 강화에 주력했다. 군중교구장 임기 4년간 스님은 신

“열정과 사명감 있어야 일 낸다”

2010년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전 불교신문 주필, 전 불교TV 제작국장)은 30년 넘게 불교 언론계에 종사해 온 산 증인이자, 한 선배 기자는 홍사성 주간이 가장 분노할 때는 불명확한 표현을 기사에 실었을 때라고 한다. 그 이유에는 불교 기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불자들에게 대한 책임감, 또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펜은 총보다 강하다고 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인으로서 신문과 잡지 등에 수많은 칼럼을 기고하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찾는 사람 중 한 명이 홍사성 주간이었다. “시주잡감 하려 불교기자 됐다.” 홍사성 주간은 1951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10대에 경기도 소요산 자재암에서 정호당 성준 선사를 만나 출가했다. 1971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 홍 주간은 종비생(宗非生, 종단

승가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1977년 은사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 이후 환속한 홍사성 주간은 1980년 불교신문에 입사한다. 홍사성 주간은 “학창시절 종비생으로서 4년 장학금을 받은 것 등 불교에서 입은 빛을 못갸웠다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속가에서 홍 주간은 그동안 품었던 불교에 대한 사랑을 글로써 뽐냈다. 수많은 기사 중에 홍 주간은 봉축법요식 의식절차 개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홍사성 주간은 “당시 초파일 조계사에서 진행된 봉축 법요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가 먼저 진행됐고 후미에 법회가 이어졌다. 지금처럼 관불의식이나 발원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2년간 육불의례와 같은 자료를 찾아가 기사로 지속적으로 의식 개선을 총무원에 제안했다.

홍사성 주간은 이후 불교방송이 개국되며 창립멤버로 포교제작부장을 맡아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라디오 방송 외에 영상에도 관심이 많았던 홍 주간은 사내 프로젝션을 추진해 방송성과물을 책과 테이프로 만들었다. 또 찬불가 수가 이웃종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찬불가 제작 5개년 계획을 세워 100곡을 만들어 냈다. 현재도 사찰에서 많이 불려지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이 이때 만들어진다. 이후 케이블 방송 종교채널이 허가가 나며 1994년 btn 제작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btn이 본 궤도에 오르는데 크게 공헌한다. 1998년 btn을 나온 홍사성 주간은 <불교평론>을 창간했다. 홍사성 주간은 후배 기자들에게 “좋은 불자가 좋은 방송, 신문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불교 일을 하는 사람은 직업을 떠나 종교적 열정과 부처님 가르침을 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주간은 “명목이나 구호로 불법을 퍼겠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종교적 삶을 성숙시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나 스스로도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홍사성 주간

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주간은 “명목이나 구호로 불법을 퍼겠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종교적 삶을 성숙시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나 스스로도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⑧ 지역주민 위한 사찰되자

사찰의 질적 성숙은 신도 개인의 수행적 성숙을 기반으로 사부대중과 사찰이 종교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질적 성숙은 개인차원, 대중차원, 지역차원의 성숙으로 구분된다. 개인차원 성숙은 신도 개인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수행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성장·성숙의 전제가 된다. 개인이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한 기준은 경전 공부, 수행, 법회 참석, 포교, 사회봉사 활동, 사찰봉사 활동, 소모임 활동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기준을 갖고 개인의 질적 성숙을 측정하는 것은 사찰의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질적 성숙을 측정하기에 이 기준들은 최소한의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지표이다.

대중차원 성숙은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공동체로서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차원의 성숙을 기반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에 정진하면서 화합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성숙이다. 현대사회에서 사찰은 출·재가자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포교하는 수행 공동체로서의 활동이 강조된다. 이는 사찰이 사부대중이 함께 삶의 보람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될 때 가능하다. 수행 목표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사찰 내 활동과 대사회적 활동이 부과되어만 수행 공동체로서 사부대중이 성장할 수 있다.

지역차원 성숙은 사찰이 해당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다. 사찰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존재한다. 지역주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찰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 사찰은 사찰다운 모습을 지역주민에게 보여줄 때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 내부의 질적 성숙에서 나아가 사찰 외부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자비·이타행의 실천으로 진정한 사찰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찰의 일부시설을 개방해 비불자도 쉽게

사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행사에도 사찰이 참여해 거리감을 좁혀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사찰이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공헌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찰성장이 이뤄진다. 사찰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에 기반을 둘 수 있게 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 보다 이상적인 사찰로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찰성장은 넓으면서도 깊으면서도 높으면서도 오래가는 성장을 의미한다.

먼저, 넓은 성장은 사찰이 지리적으로 곳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양적 성장에 해당한다. 사찰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화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넓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깊은 성장은 불자의 불교 지식과 체험이 깊게 성숙해가야 한다는 것으로 질적 성숙에 해당한다. 불교 교리, 불교사, 사찰 역사와 같은 불교 지식에 있어 더 깊이 성숙하는 사찰이 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수행적 체험을 더욱 깊이 하는 성숙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체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체험을 의미한다. 높은 성장은 불자의 삶이 윤리적인 면에서 의롭고 고결한 삶을 영위하도록 질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자의 삶이 진실로 부처님 제자답도록 성숙해가야 하는 것이다. 사찰이 이 세계에서 불국정도의 현시적인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에 걸 맞는 높은 윤리수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한다. 오랜 성장은 사찰성장이 양적·질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사찰이 장구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다. 사찰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며 넓게, 깊게, 높게 성장해감으로써만이 오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글=이이나는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양·질의 균형 중요 지역공동체서 인정 받아야

살 속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체험을 의미한다. 높은 성장은 불자의 삶이 윤리적인 면에서 의롭고 고결한 삶을 영위하도록 질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자의 삶이 진실로 부처님 제자답도록 성숙해가야 하는 것이다. 사찰이 이 세계에서 불국정도의 현시적인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에 걸 맞는 높은 윤리수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한다. 오랜 성장은 사찰성장이 양적·질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사찰이 장구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이다. 사찰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며 넓게, 깊게, 높게 성장해감으로써만이 오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서킨 호소 발아생식.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2.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월 1회 1포(40g) x 60포 (2개월분) 100,000원

법정스님 선묵 달력, 2011년<신묘년>



(사찰용) 500부이상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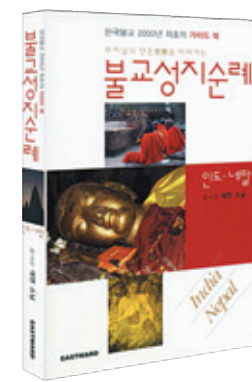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적 개성
● 도서판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무소유의 향기, 법정스님의 선묵禪墨. 영혼의 사리 99점 수록. 법정스님이 남긴 선묵禪墨. 도서출판 다래현 / 값 30,000원. 법정스님이 생전에 도반과 지인들에게 붓글씨로 써준 편지, 업서 등을 대원사 티벳박물관장인 현장 스님이 모아 펴낸 화보집입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향훈을 따라가는 불교성지순례



한국불교 2000년 최초의 가이드북!

12년간 인도-네팔의 불교성지 순례와 7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된 책으로 단순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성지와 유적들에 대한 내용과 역사적인 배경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직접 인도-네팔을 오가며 자료들을 수집한 스님의 노력 덕분에 이 책 한권이면 인도-네팔 성지순례를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대연스님 | 국판변형 | 컬러 | 382쪽 | 20,000원 | 이스트워드

산사에서 배우는 불교

산사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불교입문 교과서! 전국의 유명사찰 108곳을 정해놓고 5천여 불자들과 함께 매월 순례를 다니면서 수행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도선사 주지 선묵 해자스님이 '불교입문 교과서'로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책을 펴냈다. 불상과 전각 등 각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한국불교를 대표할 만한 관련 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선묵 해자스님 | 신국판 | 컬러 | 1519쪽 | 25,000원 | 연중출판